

#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7  |
| IV. 국제신인도    | 8  |
| V. 종합의견      | 11 |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156만 km <sup>2</sup> | G D P     | 76억 달러 (2012년)       |
| 인구   | 279만 명 (2011년)       | 1 인 당 GDP | 3,698달러 (2012년)      |
| 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통화단위      | Tugrik (투그릭)         |
| 대외정책 | 친서방 실리외교             | 환율(달러당)   | 1,354 투그릭 (2012년 평균) |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
- 95%가 몽골족으로 라마교를 주로 신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샤머니즘, 이슬람교, 회교 등도 신봉하고 있음.
- 1921년에 구소련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독립하였고 1924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의 1당 체제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구소련 붕괴 이후, 1992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동(매장량 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1,200만 톤, 3위), 석탄(1,750억 톤, 4위), 우라늄(6만 3,000톤, 14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광물 수출과 정부 지출 확대로 2012년에도 11.7%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2011년 수출 증대와 정부 지출 확대로 몽골 경제는 1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수출이 전년보다 65.8%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도 증대되어 도소매판매가 43% 증가함.
- 2012년에는 2009-10년의 한파 피해 회복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광산 개발도 지속되었으나, 3분기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보다는 낮은 11.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도 광산개발에 따른 기계·장비 등의 자본재 수입 증가와 오유틀고이 광산 생산 본격화에 따른 수출 및 세수증가로 1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 총선 이후 시혜성 지출 지속으로 2012년 재정적자가 GDP의 5.3%로 증가

- 2011년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1.1% 상승함에 따라 몽골의 재정적자가 GDP대비 1.7%를 기록함. 정부지출의 증가는 2012년 6월 총선을 앞두고 빈민층 보조금 및 농업생산 보조금 지급, 대규모 인프라 사업비 지원 등의 시혜성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2012년 공무원 임금인상, 보조금 등 이전지출이 총선이후에도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GDP의 5.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도 막대한 정부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나 오유틀고이 등 주요 광산의 생산 개시와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증가로 재정적자는 3.3%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원유, 식료품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2년 14.3%의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2011년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식료품과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9.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2년에도 상품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한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14.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토르고화 강세에 따른 상품가격 조정과 농업 부문의 풍작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떨어져 12.4%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2013 <sup>t</sup> |
|------------|------|------|------|-------------------|-------------------|
| 경제성장률      | -1.3 | 6.4  | 17.3 | 11.7              | 13.8              |
| 재정수지 / GDP | 5.0  | 2.5  | -1.7 | -5.3              | -3.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3  | 10.1 | 9.5  | 14.3              | 12.4              |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높은 대외 의존도

- 농업활성화, 제조업기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캐시미어 등 단순가공에 그치고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11.5%로 낮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열악한 기후여건, 소규모 영농,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 부재 등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아 곡물 수요량의 1/3만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식료품 수요의 대부분도 수입에 의존

- 광활한 국토에 인구가 적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발전에 애로

□ 광물 위주의 수출품으로 외부경기 변동에 민감

- 2011년 광물이 총수출의 80.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의 다양화 미흡으로 외부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함. 특히 중국이 몽골 수출의 85.7%, 수입의 43.3%를 차지하는 제1 수출·수입국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음.
- 몽골 정부가 광업 성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위축으로 광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몽골 경제의 급격한 성장둔화가 불가피

□ 열악한 수송 인프라로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활용 미흡

- 광활한 국토, 적은 인구, 광업과 목축업 위주의 산업 구조 등으로 철도, 도로 등 수송과 관련된 물류여건이 열악함. 이에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몽골정부는 수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및 전략광산을 연결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매장량 기준 동 세계 2위, 석탄 세계 4위의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몽골은 동(매장량 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1,200만 톤, 3위), 석탄(1,750억 톤, 4위), 우라늄 (6,300만 톤, 14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내륙국인데다 재원이 부족하여 광산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광물가격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용이

- 몽골 광물자원의 최대 수요자이자 투자국인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수출에 용이

## 다. 정책성과

### □ 광물자원 개발이 활발하지만 정부의 지분 확보 등의 규제도 강화

- 2009년 오유틀고이 광산개발 협상이 타결되어 캐나다 아이반호사가 동, 금 개발을 시작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임.
- 광물가격 급등시 부과하였던 초과이윤세 폐지(2011.1)로 투자여건이 개선됨.
- 정부의 광산분야 투지 유치로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대비 225.8%증가한 53억 1,000만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함.
  - 국가별로는 중국(51%)이 최대 투자국이고 이어 캐나다(8.3%), 네덜란드(6.1%), 한국(5.3%), 일본(2.9%), 홍콩(2.6%) 순이며, 업종별로는 광업부문이 전체의 65.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FDI 유입액 추이: 10억 3,800만('09) → 16억 3,000만('10) → 53억 1,000만('11)

- 그러나 2012년 4월 China&co(동광기업)의 사우스 고비 리소스 사에 대한 지분 인수(60%) 계획에 몽골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함.
  - 이에 석탄, 구리 등 광업, 은행, 통신업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을 750만 달러로 제한하고, 지분 49%초과시 정부 심의와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이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

### □ 물가인상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확장재정으로 정책효과는 미미

- 몽골 중앙은행은 2011년 한 해동안 기준금리를 1.25%p (현재12.25%), 지급준비율을 9%p (현재 11.0%) 인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함. 그러나 정부 지출이 확대로 통화공급 (M2)이 전년 대비 55%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대한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쇄됨.

### 3. 대외거래

#### □ 광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록

- 몽골은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오유틀고이 등 대다수 광산이 개발단계로, 광산 개발을 위한 자본재 투입은 계속되는 한편 광물생산이 개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수출은 중국으로의 석탄수출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캐시미어, 금 등
  - 2011년 수입은 광산개발을 위한 연료, 기계설비,수송설비 등임.
- 특히 2011년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증가(144%), 주요 수출품인 동 가격 상승(25%) 등으로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55.9%)하였으나 수입증가 속도(111.3%)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9.5배(17억 달러)증가함.
-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32.2%규모(27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이는 상품수지 적자 외에도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과실송금 증가 (223.2%)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FDI유입액이 2011년 53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1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함. 외환보유액은 2011년 말 26억 200만 달러로 월 평균 수입의 4.8개월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경 상 수 지   | 172   | -690  | -342  | -887  | -2,760 |
| 경상수지/GDP  | 4.2   | -14.8 | -7.7  | -16.1 | -32.2  |
| 상 품 수 지   | -52   | -627  | -189  | -180  | -1,705 |
| 수 출       | 1,951 | 2,529 | 1,885 | 2,909 | 4,822  |
| 수 입       | 2,003 | 3,156 | 2,074 | 3,089 | 6,527  |
| 외 환 보 유 액 | 802   | 561   | 1,218 | 2,124 | ...    |
| 총 외 채 잔 액 | 1,699 | 1,643 | 2,096 | 2,732 | 3,884  |
| 총외채잔액/GDP | 41.4  | 35.3  | 47.0  | 49.5  | 47.3   |
| D S R     | 4.2   | 2.8   | 3.7   | 4.4   | 3.8    |

자료: IFS, EIU.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안정

##### □ 2012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몽골인민당-민주당 연립정부의 붕괴

- 2008년 총선 당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몽골인민당과 민주당이 연정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인민당의 산자 바야르(Sanja Bayar) 총리가 연립정부의 총리로 추대됨.
- 2009년 5월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의 엘벡도르지 (T. Elbegdorj)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인민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2009년 10월 산자 바야르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였으나 수흐바타르 바트볼드(Sukhbaatar Batbold) 전 외무부장관이 총리로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
- 이후 정치안정이 지속되었으나 2012년 1월 민주당 의원의 내각 사임, 민주당의 연정 탈퇴 선언으로 6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 간 경쟁과열,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 □ 연립내각 구성으로 향후 정국 불안 가능성 내재

- 연정 붕괴에 따른 정국 불안으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시위 발발,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으나 총선은 예상과 달리 평화롭게 진행됨.
- 그러나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민주당이 31석(지역21, 비례10)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함.
  - 2012년 7월 기준 최소득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 2개 선거구와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아르항가의 2석을 제외하고 총 72개 의석이 확정되었으며, 민주당 외에 몽골인민당 25석, 인민혁명당/국민민주당 연합(정의연합) 11석, 민의녹색당 2석(비례), 무소속 3석임.



- 7월 민주당은 당 대표인 노로빈 알탄호야그(Noroviin Altankhuyag)을 차기 총리로, 민주당 의원 잔다후 앙흐바야린(Zandaakhuu Enkhbold)을 국회의장에 내정하고 정의연합, 민의녹색당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수립함.
- 선거 이후 내각 구성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몽골 정국이 안정되니 편이나 과거 선거를 앞두고 연정이 붕괴된 경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 한편 자원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인민혁명당이 내각에 합류함에 따라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정국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 등이 불안요인이나 소요 발발 가능성은 낮아

- 2009~10년 한파 피해에 따른 빈민층 증가, 실업 증대 등의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음. 특히 흑한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2만 여명의 유목민이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주함에 따라 몽골의 실업률이 25~30%로 추정됨(세계은행).
- 이와 함께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
- 광산 개발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공유되지 않은 데 따른 박탈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높음. 외국인에 의한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2011년 4월 대규모 집회가 열림.
- 그러나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고 경제 성장도 지속되고 있어 대규모 소요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3. 국제 관계

#### □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구사

- 인접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원조국인 일본, 미국 등을 활용하기도 함.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구사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몽골의 대 ECA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

-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공적수출신용 집행금액(4,650만 달러) 중 연체분은 200만 달러로 (전체의 4.4%)로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 □ 몽골정부가 재정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외채를 줄이려는 자구책 마련

-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고, 외채를 GDP 대비 40%로 유지할 의무를 담은 재정책임법이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

### 2. 국제시장 평가

#### □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주의등급 유지

- 2011년 OECD는 경제성장을 플러스 전환,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확충, 주요 수출광물가격 회복, 환율 안정 등에 따라 몽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함. OECD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몽골의 신용등급을 투자주의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수출입은행   | C3 (2012. 7.)  | C3 (2011.12.)  |
| OECD    | 5등급 (2012. 3.) | 5등급 (2011. 3.) |
| S&P     | BB- (2011.12.) | BB- (2010.11.) |
| Moody's | B1 (2009.10.)  | B1 (2009. 6)   |
| Fitch   | B+ (2011.11.)  | B+ (2010.11.)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3월 26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4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1991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이종과세방지협약(1993년), 세관분야 협력협정(1993년),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년), 관광협력협정(2004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협정(2006년)

□ 상품수지 흑자 지속

○ 2011년 교역규모가 4억 1,06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몽골 수출은 전년대비 82.6%가 증가한 3억 4,987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56.1%증가한 6,062만 달러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표 4> 한·몽골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대 몽골 | 2010    | 2011    | 2012<br>(1월~11월) | 주요품목                 |
|------|---------|---------|------------------|----------------------|
| 수 출  | 191,631 | 349,987 | 397,985          | 자동차, 건설 및 광산기계, 기호식품 |
| 수 입  | 38,839  | 60,620  | 47,755           | 금속, 비금속광물, 석탄        |
| 합 계  | 230,470 | 410,607 | 445,740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 및 광산 기계, 기호식품 등이고, 수입 품은 금속과 비금속광물, 석탄 등임.

-특히 2011년 대한석탄공사 외 2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에르데넛 광산에서 30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하면서 2010년 3,000달러에 불과하였던 석탄 수입액이 2011년 1,840만 달러로 급증함.

#### □ 대몽골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 2011년까지 투자 누계 기준으로 보면 2억6,900만 달러로, 2005년부터 자원 개발, 철도 및 도시건설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대 몽골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함.
- 부문별로 광업 (25.4%), 도매·소매업(19.7%), 부동산 임대업 (9.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2%), 건설업(7.4%) 등의 순임.
- 그러나 2011년 우리나라의 대몽골 해외직접투자액이 4,311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액의 0.1%에 불과함.

## VI. 종합 의견

- 몽골은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 광물자원 개발 등에 힘입어 2011년 17.4%에 이어 2012년에도 1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오유틀고이동, 금 광산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1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그러나 광물 수출이 몽골 GDP의 80%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기의 변동에 따른 광물가격의 부침이 몽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정치적으로 2012년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은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 게다가 자원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인민혁명당이 내각에 합류함에 따라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정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 등도 사회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음.
- 광산 개발 활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경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유럽재정 위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선거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몽골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됨.

조사역 강 수 연 (☎02-3779-5716)  
 E-mail: sykang@koreaexim.go.kr